

## 장병 정신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 교관의 계급과 교육 수준이 교육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oral Educational Effect of Military Service: The effect of class and student level of instructor on educational effectiveness

성삼영\*, 김기주\*\*, 이상은\*\*\*, 양종훈\*\*\*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지털이미지학과 박사과정  
 (육군본부 공보운영장교)\*,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지털이미지학과 박사과정  
 (55사단 정훈공보참모)\*\*,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지털이미지학과 교수\*\*\*

Seong sam-young\*, Kim gi-ju\*\*, Lee sang-eun\*\*\*,  
 Yang jong-hoon\*\*\*

Sangmyung Univ. The Graduate School, Digital  
 Image Department, Doctor's course (ROK Army  
 HQs PAO)\*

Sangmyung Univ. The Graduate School, Digital  
 Image Department, Doctor's course

(ROKA 55 Infantry Division's the chief of the TI&E)\*\*,

Sangmyung Univ. The Graduate School, Digital  
 Image Department, Prof.\*\*\*

#### 요약

군에서는 무기체계인 유형전력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전력 또한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정신전력도 전투력의 중요 요인으로 이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계급사회인 군의 특징을 고려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신전력 교관의 계급과 교육 참여자들의 수준이 교육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통해 정신전력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교관의 계급이 높을수록 효과도 높을 것이라는 관념적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였으며, 교육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보다 교육생들과 직접 접촉하는 교관의 준비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교육에 대한 참여의지와 교육의 중요성 인식이 교육기간 동안 증가할수록 교육의 효과도 증가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 I. 서론

군에서는 무형전력 중에서도 정신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 방법 등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제도, 교관의 수준 차이, 교육생의 자질과 태도, 교관과 교육생의 신뢰관계, 교육환경, 교육여건 등 수많은 영향 요인으로 인해 효과 제고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1]

이에 교육현장 중심에서 장병 정신교육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알아보고 나아가 정신교육에 교관의 계급의 높고 낮음이 정신교육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교관의 수준과 교육생의 수준(참여의지, 교육중요성 인식 정도)이 효과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을 통해 장병들의 정신교육 효과제고 방안을 모색하였다.

## II. 연구방법

설문대상은 '17년 4월부터 5월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반기집중정신교육에 참여하는 부대 장병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A, B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 100명씩 교육실시전 사전 설문과 교육 종료후 사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A집단은 2차 지휘관인 대령, B집단은 1차 지휘관인 대위가 교육하였다. 설문지는 안보문제연구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안보에 대한 여론조사」,

「군 정신전력 측정 평가 방안」, 「군에서의 정신교육이 병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실증적 연구」 등 기존에 개발된 도구를 토대로 사전·사후 설문으로 구분 작성하여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 III. 연구가설 및 검증

### 1. 연구가설 1 : 정신교육 교관 계급과 교육 참여자와의 상관관계

(가) 가설 1-1 : 정신교육 교관의 계급이 높을수록 교육생들의 교육 참여 의지가 높을 것이다. (채택)

구분	A 집단 (대령)		B 집단 (대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매우 높다	36	36	24	24
높다	47	47	43	43
보통	15	15	31	31
낮다	-	-	-	-
매우 낮다	2	2	2	2

교육 참여 의지 면에서는 '높다' 이상이 A집단은 83%, B집단은 67%로 나타나 대령이 참여한 A집단이 17% 높게 나타나 정신교육 참여자의 계급이 높을수록 참여자들이 교육 참여 의지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하지만 증가율 분석에서는 A집단은 사전설문 75% → 사후설문 83%로 8% 증가한 반면, B집단은 사전설문 47% → 사후설문 67%로 20%가 증가하여 증가율은 오히려 B 집단이 높았다.

(나) 가설 1-2 : 정신교육 교관의 계급이 높을수록 정신교육 교육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기각)

구분	A 집 단 (대령)		B 집 단 (대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매우 중요	39	39	45	45
중요	47	47	42	42
보통	12	12	10	10
중요하지 않음	-	-	3	3
전혀중요하지 않음	2	2	-	-

정신교육의 중요성 면에서는 중요 이상이 A집단은 86%, B집단은 87%로 나타나 오차 범위 내에 분포하여 계급이 높을수록 참여자들이 정신교육의 중요성을 더 인식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 2. 연구가설 2 : 정신교육 교관의 계급과 교육효과 간의 상관관계

(가) 가설 2-1 : 정신교육 교관의 계급이 높을수록 정신교육 효과도 더 높을 것이다.(기각)

구분	A 집 단 (대령)		B 집 단 (대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많은 도움	37	37	43	43
도움	42	42	44	44
보통	19	19	11	11
도움되지 않음	-	-	2	2
전혀도움되지 않음	2	2	-	-

정신교육 효과면에서는 도움 이상이 A집단은 79%, B 집단은 87%으로 B집단이 오히려 8% 높게 나타나 교관의 계급이 높을수록 교육효과도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 3. 연구가설 3 : 교육생의 수준과 교육 효과간의 상관관계

(가) 가설 3-1 : 교육생들이 정신교육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교육효과도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기각)

구분	A 집 단 (대령)		B 집 단 (대위)	
	정신교육중성 빈도(명)	정신교육효과 빈도(명)	정신교육중성 빈도(명)	정신교육효과 빈도(명)
매우 높다	39	37	45	43
높다	47	42	42	44
보통	12	19	10	11
낮다	-	-	3	2
매우 낮다	2	2	-	-

대령이 교관인 A집단은 정신교육의 중요성을 높다 이상이 86% 응답했으나 효과면에서는 도움된다 이상을 79% 선택한 반면, 대위가 교관인 B집단은 정신교육의 중요성을 높다 이상이 87%가 응답하고 도움된다도 87%가 응답해 B집단의 효과가 8%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요성 인식 빈도에서 A·B집단이 근사한 차이를 보여 이 가설은 기각되었다. 하지만 사전·사후설문의 중요성 증가율을 비교해 볼 때 중요성 인식의 증가율이 클수록 정신

교육 효과도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가설 3-2 : 교육생들의 정신교육 참여 의지가 높을수록 교육효과도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기각)

구분	A 집 단 (대령)		B 집 단 (대위)	
	교육참여 의지 빈도(명)	정신교육효과 빈도(명)	교육참여 의지 빈도(명)	정신교육효과 빈도(명)
매우 높다	36	37	24	43
높다/도움	47	42	43	44
보통	15	19	31	11
낮다	-	-	-	2
매우 낮다	2	2	2	-

A집단은 교육 참여 의지가 높다 이상이 83% 응답했으나 효과면에서는 도움된다 이상을 79%가 선택한 반면, B 집단은 교육참여 의지 높다 이상이 67%가 응답하고 도움된다도 87%가 응답해 이 가설도 기각되었다.

### 4. 연구가설 4 : 교관의 교육준비와 교육 효과간의 상관관계

(가) 가설 4-1 : 교관의 교육준비 상태가 만족스러울수록 교육효과도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채택)

구분	A 집 단 (대령)		B 집 단 (대위)	
	교육준비상태 빈도(명)	정신교육효과 빈도(명)	교육준비상태 빈도(명)	정신교육효과 빈도(명)
매우 만족	39	37	46	43
만족/도움	46	42	45	44
보통	14	19	9	11
미흡	-	-	-	2
매우 미흡	1	2	-	-

A집단은 교관의 교육준비 상태가 만족 이상이 85% 응답했으나 효과면에서는 79%가 도움된다 이상을 선택한 반면, B집단은 교관의 교육준비 상태가 만족 이상이 91%가 응답하고 도움된다도 87%가 응답해 교관의 교육준비 상태가 교육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돼 이 가설은 채택되었다.

## IV. 결론

이번 연구에서는 먼저, 교관의 높은 계급이 아니라 교육준비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중요성 인식이나 참여의지를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느냐에 따라 교육효과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교관의 계급이 높을수록 장병들의 참여 의지를 높이는 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대상자의 수준이 낮을수록 단기간의 정신교육을 통해 의지나 중요성 인식, 임무수행의지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반면, 참여 대상자의 수준이 높으면 단기간의 교육으로 이러한 요인을 증가 시키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 ■ 참고 문헌 ■

[1] 박재곤, “군 조직특성이 정신전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신전력연구』 제48호, pp224, 2017.  
 [2] 이강국, “부하들의 능동적 참여가 지휘관의 변혁적·거래적 리더십과 직무만족 간에 미치는 조직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2호, pp.466 ~ 468, 2015.